

2026년 7월 6일 제53호

연구위원 황규완
연구위원 김종현
연구위원 서유나

HIF 월간 산업 이슈(7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산업별 주요 이슈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 경쟁 심화

- 최근 정부가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반도체 생산거점 확대 및 생태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
- 글로벌 기업들도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하며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또한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여갈 전망

로봇

Physical AI 정책의 성패는 로봇 양산 역량 확보가 좌우

-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06.29)를 통해 Physical AI·로봇산업 육성을 추진하며 삼성 등 주요 기업은 새만금, 구미에 Physical AI 거점 조성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
- 글로벌 로봇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양산 역량 확보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자동차 부품사의 업종 전환과 Physical AI 관련 실증 사업, 투자 집행을 모니터링할 필요

건설

미-이란 종전에 따른 기반시설 복구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 확대

- 미-이란 전쟁이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최대 580억 달러에 달하는 중동지역 인프라, 산업설비 재건사업이 국내 건설사들의 새로운 수주 기회로 부각되는 중
- 국내 건설업체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경우 재건 효율성 측면에서 국내 건설사가 복구 작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 역시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 대응 중

산업 이슈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 경쟁 심화

로봇

Physical AI 정책의 성패는 로봇 양산 역량 확보가 좌우

건설

미-이란 종전에 따른 기반시설 복구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 확대

C26.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 경쟁 심화

연구원 서유나

※ Summary : 최근 정부의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로 인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 마이크론(美), 키옥시아(日) 등 글로벌 메모리 제조업체들도 각국 정부의 보조금, 세제 지원 등을 기반으로 생산시설을 확대함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생산거점 다변화 및 첨단 생산능력 확보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또한 메가프로젝트 등에 힘입어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으로 예상

■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반도체 생산거점 다변화 및 확장을 모색

- 지난 29일 발표된 정부의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반도체 생산거점 전국 확대 등의 3S 전략을 통해 AI 시대의 반도체 주도권 및 메모리 초격차 확보를 모색
 - 용인 산단 완공 시점을 단축하는 속도전(Speed), 반도체 생산 거점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거점전(Stronghold), 엿지 AI·국방 반도체 등을 육성하는 선도전(Spearhead)을 총력 지원할 계획
- 특히 서남권 총 800조원 규모의 메모리 팹 4기, 충청권 81조원 규모의 HBM 패키징 팹, 동남권·대경권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강화 등 국내 생산거점 다변화 및 확장이 예상

표1 |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주요 내용

3S	세부 내용 및 파급 효과
속도전 (Speed)	수도권(용인) 반도체 생산 거점 조기 완공 • 삼성전자 주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팹 6을 '40년까지 완공(7년 단축) • SK하이닉스 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팹 4를 '33년까지 완공(12년 단축) → 생산능력 조기 확보로 AI 반도체 수요 적기 대응
거점전 (Stronghold)	반도체 생산 거점을 전국으로 확장 • 서남권 총 800조원 규모, 메모리 팹 4기 • 충청권 총 81조원 규모, HBM 패키징 시설 • 동남권·대경권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 지역별 클러스터 형성으로 공급망 안정성 제고
선도전 (Spearhead)	차세대 메모리, 엿지용 AI 반도체, 국방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를 육성 → 차세대 시장 선점 및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자료 : 산업통상부, 하나금융연구소

그림1 | 국내 반도체 생산거점



자료 : 언론보도 종합

■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도 생산거점을 확대하며 공급망 주도권 경쟁이 심화

- 글로벌 메모리 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은 미국,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현재 대비 약 2.6배 수준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
 - 특히 미국 CHIPS Act 60억 달러 보조금을 통해 미국을 최대 생산 거점으로 강화하고, 일본 히로시마에도 투자금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최대 5,360억엔 보조금을 통해 HBM 거점을 확장
- 일본 낸드플래시 기업 키옥시아 역시 1,500억엔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25년 일본 기타카미 팹을 확장했으며, 오키아이치에 425단급 최첨단 3D 낸드 시설을 신축할 계획
- 중국 CXMT(D램), YMTC(낸드) 등도 '26~'28년에 걸쳐 생산능력을 1.5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신규 팹을 건설하고 있는 등 생산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

■ 향후 반도체 공급망은 국가 정책과 결합되어 다변화되며 금융 수요도 확대될 전망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각국 정책을 바탕으로 생산거점 다변화 및 첨단 생산능력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금융 수요가 확대될 전망
- 국내 또한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메모리 및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대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핵심 생산거점으로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으로 예상
 - 다만 수급 측면에서는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된 가운데, AI 투자 둔화 및 메모리 수요 조정이 발생할 경우 공급 과잉으로 업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
- 반도체 제조시설과 더불어 소재·부품·장비, 전력 인프라 등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가 증가할 전망
 - 금융권은 성장성이 높은 공급망 참여기업 등에 대한 금융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 

표2 |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생산시설 및 신규 Fab 증설계획

기업명	기존 시설		신규 시설				
	위치	생산능력	팹명	제품	선폭	가동 시기	생산능력
삼성전자	평택(D램, HBM, 낸드), 화성(D램, 낸드), 중국 시안(낸드)	약 1,500K	평택 P5	D램, 낸드	10nm	2027	약 300K
			평택 P4(Phase 2)	D램, HBM	10nm	2029	
SK하이닉스	이천(D램, HBM, 낸드), 청주(낸드), 중국 우시(D램), 다롄(낸드)	약 900K	청주 M15X	HBM	13nm	2026	약 1,100K
			용인 Y1-4	D램, HBM, 낸드	10-9nm, 456단	2027~2033	
마이크론(美)	미국 버지니아(D램, 낸드) 대만 타이중, 타오위안(D램, 신주(낸드), 일본 히로시마(D램))	약 500K	대만 마요리 Fab P5	D램, HBM	10-8nm	2027~2029	미국 700K, 대만·일본 합산 100K
			일본 히로시마	HBM	12nm	2028	
			미국 아이다호ID 1·ID 2	D램, HBM	-	2027~29	
			미국 뉴욕 Clay Fab 1-4	D램	-	2030~2041	
키옥시아(日)	일본 오키아이치, 기타카미(낸드)	약 800K	일본 오키아이치 Fab 7	낸드	425단	2029	약 40K

주: 생산능력(웨이퍼장/월)은 최대 웨이퍼 생산능력을 의미
자료: SEMI,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하나금융연구소

C29. 로봇

Physical AI 정책의 성패는 로봇 양산 역량 확보가 좌우

연구원 김종현

※ Summary :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06.29)를 통해 Physical AI를 통한 로봇산업 육성을 추진. 삼성·SK·현대차 등 주요 기업은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과 핵심 부품 국산화를 제고, 양산 역량 확보 등을 위해 새만금과 대경권에 Physical AI 거점 조성 등 대규모 투자를 계획. 향후 국내 로봇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도 확대를 위해서는 獨·日 등 선진 경쟁국 대비 ‘양산 역량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클러스터 중심의 생태계 확장 및 강화와 앵커기업 실증 지원, 속도감있는 민·관 자금 집행 및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해질 전망

■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Physical AI와 로봇산업 육성을 추진

-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06.29)를 통해 반도체·AI DC 외에도 AI 로봇 산업의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한 Physical AI 관련 ‘3M 전략’을 제시
 - ‘30년 Physical AI 글로벌 1강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①제조업 AI 전환(M.AX), ②핵심 요소 기술의 경쟁력(Master) 확보(해외 파운데이션 모델 의존도 축소, 주요 로봇 부품 국산화를 제고 위한 R&D 투자 확대), ③양산 체계(Mass Production) 구축 추진
- 삼성, SK, HD현대 등 주요 대기업은 새만금과 대경권을 Physical AI 핵심 거점으로 선정 하여 로보틱스 관련 투자를 진행할 계획
 - 삼성 : 구미를 영남권 Physical AI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라인을 별도로 구축
 - SK : 로봇 완제품 및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하지 않으나 Physical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공
 - 현대차 : 새만금을 Physical AI 관련 생산 및 부품 클러스터로 지목

표3 | 정부의 Physical AI 관련 정책

정책	Physical AI관련 내용
3대 메가 프로젝트 (06.29)	●① M.AX 가속화 : 주력 제조업과 로봇산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제조업 AI 전환 가속화 ●② 핵심 Master 육성 : AI, 부품 등 핵심 요소 기술의 경쟁력(Master)을 확보 ●③ Mass Production : 국내 로봇 양산체계를 지역(구미, 새만금) 중심으로 신속히 구축
국민성장 펀드 - M.AX 프론티어 (07.01)	● [개요] AI 팩토리·로봇·미래차 등 제조업 AX를 위한 산업·금융 협력 사업 ● [산업통상부] ‘M.AX 얼라이언스’(1,500여 개 기관 참여)를 통해 제조기업의 AX와 기술혁신 지원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를 활용,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에 올해 약 16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언론종합, 하나금융연구소

그림2 | Physical AI 관련 3M 전략에 따른 주요 기업 계획

➢ 탄탄한 국내 생산기반 활용, AI로봇 압축 성장(3M 전략) ①M.AX 가속화 ②핵심 Master 육성 ③Mass Production ➢ 새만금·대경권 : K-로봇 양대축, 지역 중심 로봇 생산기반확충 ➢ 휴머노이드 산업현장확산, 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새만금 현대차그룹 주도 • 로봇 부품 클러스터 조성 • 한국 생태계 맞는 소버린 AI 개발 • 로봇 파운드리 구축 및 스타트업 생산 지원	대구·경북 삼성SDI, LG전자, HD현대로보틱스 등 주도 • 휴머노이드용 배터리 개발 • 자동차 부품사의 로봇산업 업종 전환 지원 • 자동차·조선 산업 연계 산업용 로봇 실증 지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언론종합, 하나금융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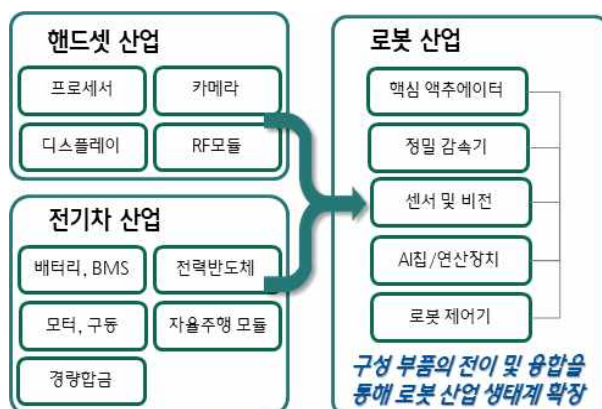
■ Physical AI 거점 조성 및 자동차 부품사의 로봇 업종 전환 등으로 로봇 생태계 강화

- 정부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핵심 부품 국산화 등 국내 로봇 밸류체인 역량 강화를 추진
 - Nvidia는 Isaac, Groot 등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통해 Physical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휴머노이드 기업 상당수가 Nvidia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이 필요
 - 일본 대비 하모닉 드라이브, 액추에이터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자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내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부품 국산화를 제고를 지원할 필요
- 구미 등 대경권의 자동차 부품 업체 위주로 로봇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생태계 조성이 이뤄질 전망이나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중국 제외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獨·日 등 로봇 선진국 대비 양산 경쟁력 확보가 중요
 - 로봇 핵심 부품은 모터와 가속기, 센서, 램프 등 자동차 부품과 60~70%가 유사하므로 현대차 1차 협력사 에스엘, HIL만도 등 국내 자동차 부품사 30여 곳은 로봇 부품사 전환을 선언
 - 한편, 美 로봇 기업은 SW분야 최고 역량에도 HW 관련 파트너십이 필요하여 한국과의 협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므로 Goldman Sachs는 한국이 '35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생산의 30%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

■ 양산 경쟁력 확보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므로 투자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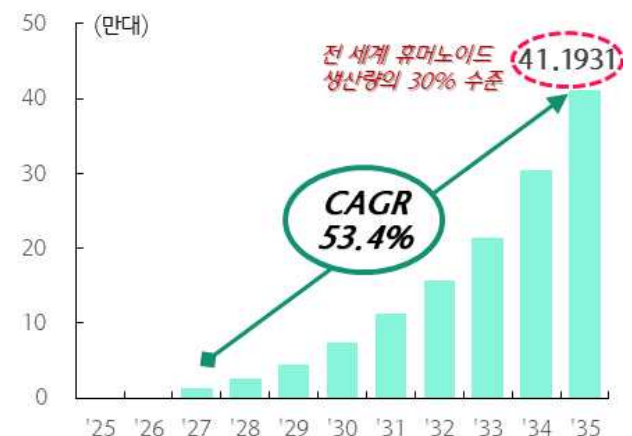
- 정부는 핵심 부품 국산화 및 양산 역량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나, 양산 역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앵커기업 중심의 실증 지원과 속도감있는 자금 집행 및 투자 지속이 중요해질 전망
 - 실질적 로봇 양산 역량 검증을 위해서는 정부와 삼성, HD현대 등의 Physical AI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07.01),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07.03) 등의 후속 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나 정책의 구체성과 진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는 제조업 AX를 위한 16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 계획을 포함
 -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은 삼성이 영남권을 AX와 로봇 기반의 Physical AI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6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그림3 | 자동차 등 타 산업 밸류체인의 로봇 산업 전이



자료 : 신한투자증권, 하나금융연구소

그림4 | 국내 로봇기업이 참여한 글로벌 휴머노이드 생산대수 전망



자료 : Goldman Sachs, 하나금융연구소

F41. 건설업

미-이란 종전에 따른 기반시설 복구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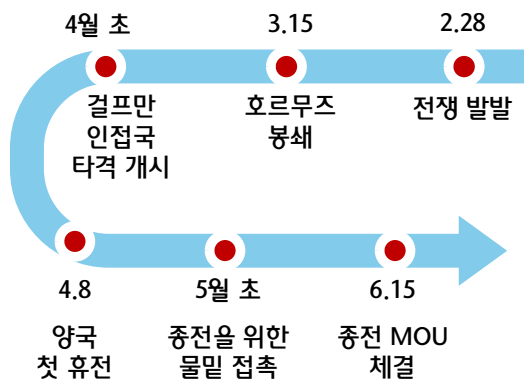
연구위원 황규완

※ Summary : 미-이란 전쟁이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중동지역 인프라, 산업설비 재건사업이 부각되는 중. 재건 비용은 최대 580억달러로 추산되며 이란에 집중된 상황이나 이란 재건에 활용되는 3,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모집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반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걸프 회원국들의 재건사업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 당초 국내 건설업체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경우 재건 효율성 측면에서 국내 건설사가 복구 작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 역시 지원을 위해 재경부 및 외무부에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

■ 미-이란 전쟁 종전 MOU 체결되며 역내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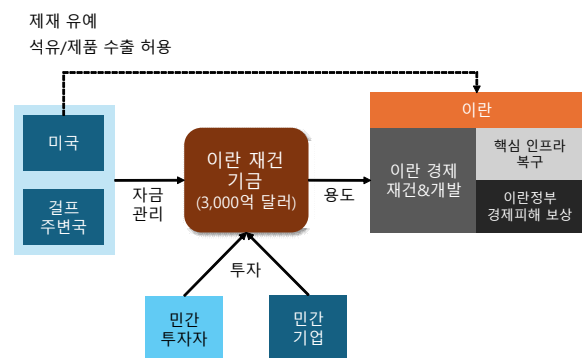
- 2월말 개전된 미-이란 전쟁은 사상 초유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란의 주변 걸프 연합국에 대한 폭격 등의 상흔을 남기고 현재는 본격적인 종전 협상에 돌입
 - 협상 전 양국은 60일간의 휴전 및 사후 처리 원칙을 담은 MOU를 체결(6.15일)
- 종전 협상의 핵심 키워드는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및 기존 핵물질의 처리 방안이며 협상이 길어질 경우 양국의 합의에 따라 60일의 휴전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상황
- 또한, 양국은 이란 경제 재건을 위해 3,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은 자국 이외의 국가 및 민간의 자금을 활용해 이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단, 카타르의 모하메드 총리가 ‘3,000억 달러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열망하는 수치’라고 발언하는 등 실제 자금 모집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

그림5 | 미-이란 전쟁 Time Line



자료 : 언론기사 종합

그림6 | 이란 재건 자금 구조도



자료 : INSS(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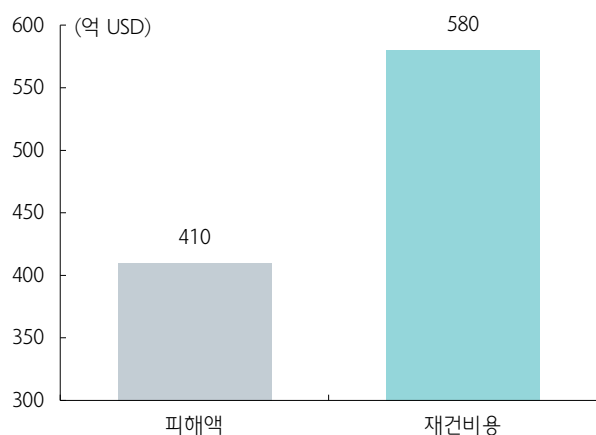
■ 종전 이후 파괴된 인프라 및 생산설비 재건에 최대 580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

- 전쟁으로 파괴된 이란의 각종 인프라 및 걸프 주변국들의 생산시설 피해액은 약 41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를 복구하는데 최대 58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복구 비용의 대부분은 원유 정제 및 화학제품 제조 시설에 대한 엔지니어링, 건설 비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장 큰 변수로는 장비 및 건설자재의 공급망 접근성(물류)이 지적되었음
 - 접근성 제약, 전쟁 위험에 따른 보험 할증 등을 고려하면 복구 지연 및 비용 증가가 우려
- 전후 복구는 이란에 집중될 것이나 재건 자금 모집의 불확실성, 이란과 경제적·정치적으로 밀접한 중국과 미국간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재건 개시 시점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

■ 걸프 주변국의 피해 복구 프로젝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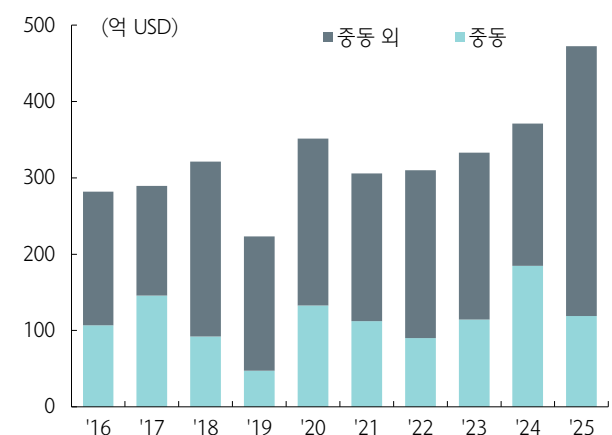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은 걸프 주변국들의 피해 재건은 빠르게 개시될 것이며 우리나라와 관계가 원할하다는 측면에서 국내 건설업체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이들 지역의 주요 인프라 및 산업설비는 국내 건설사가 참여한 경우가 많아 재건 효율성 측면에서 국내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도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동 인프라 협력 TF’ 및 ‘한-중동 경제협력팀’ 등을 신설(6.28일)
 - 과거 10년 평균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중 중동지역의 비중은 약 35%
- 다만, 복구의 순서가 손실평가, 엔지니어링, 건설 발주 순으로 진행되므로 실제 수주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란 재건의 경우 높은 불확실성에 더해 과거 손실 경험 등이 겹쳐 국내 건설사들의 신중한 접근이 예상됨 

그림7 | 미-이란 전쟁 피해액 및 예상 복구 비용



주 : 이란측 피해액 및 재건비용이 포함된 추산액
자료 : Rystad Energy

그림8 | 해외 건설 수주액 추이



자료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HIF 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